

문대통령-5당대표 오늘 회동...대일 합의문 주목

이해찬 “초당적 지혜 모아야” 황교안 “국정 전환 계기돼야” 쟁점 현안 포함 가능성...입장차 클 뎀 의견 교환 그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회동 참석자들의 합의문이 입장문이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여야는 회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초당적 협력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당 회의에서 “우리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청와대 회동이 국정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온 민주당과 지나친 반일감정 자극을 경계해온 한국당이 각론에서 충돌할 경우 합의문을 내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수출규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뚜렷한 이견이 노출된다면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합의문 성안을 포기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

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5당이 이번 회동의 의제를 경제보복으로 제한하지 않은 만큼 기타 쟁점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이에 맞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방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야권에서는 군 기강해이 사태를 매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히, 이날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태 해결의 동력으로 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대표 특보단 본격 가동

“총선 승리만을 위해 매진” 전해철 의원 등 6명 임명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주시고 교수(균형발전)를 특보로 임명했다

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 대표를 맡은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나머지 기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보단은 당 대표의 정무적, 정책적 자문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수행할 생각이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로 특보를 구성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는 이수혁·최운열 의원을 각각 외교·안보와 경제 부문 특보에 임명했다.

이 밖에 임종순 한국건설산업협회장(경제), 채양목 최재형기업사협회 대표(경제), 황태규 유석대 경영대학원 부교수(균형발전)를 특보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없이 추경처리” vs “정경두 방탄 국회”

민주 “국방 연계 억지 논리” 한국당 “與 뭉치에 본회의 못 열어”...여야 대치 지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이를 뒤 종료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치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을 재확인하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를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6월 국회 종료일인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법안 처

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국면의 고소·고발전 이후 본격화한 경찰 조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응하는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거듭 공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뭉치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여당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은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갖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대로 내일(18일)과 모레(19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장,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망언’ 김순례 징계 끝나...최고위원직 자동 복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

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19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연합뉴스

여야, 제헌절 맞아 민주주의 한목소리

민주 “정권교체 헌법으로부터” 한국 “헌법정신 흔들려”

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공존 정신을 강조하며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제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 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풀파티

맑은물 푸른숲 장남진 장흥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

제12회 장남진 장흥 물축제

2019. 7. 26(금) ~ 8. 1(목) 7일간
탐진감 및 민백색 무드랜드 일원

- 주요행사 일정 -

- 개막식 : 7월 26일 (금) 오후 8시 (축하공연_ 비아이, 노라조, 제시, 박애리 등)
- 살수(薩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7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6일 (금) ~ 8월 1일 (목) 오후 2시
- 할금물고기를 잡아라 : 7월 27일 (토) ~ 8월 1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樂 풀파티
 - 7월 26일 / DJ에나, 허조교
 - 7월 27일 / 블런트밴드, 춘자, DJ차니
 - 7월 28일 / 박수홍, 손헌수, DJ주주, 미스터팡, DJ레드핑크
- 공개방송
 - 목포 MBC : 7월 29일 (월) 송기인, 진시몬, 강민주, 이혜리, 현진우, 소명, 정정아, 강민, 목비, 김경아, 이침아, 김대나, 임영동
 - C J 헬 로 : 7월 31일 (수) 박구윤, 레이디 T, 박서진, 소현아, 태연아, 한민지, 이세진, 임경진, 신아라